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2003) : 239~278

## 태국어 어휘 '꺼' /kɔ:/에 관한 연구\*

윤경원\*\*

### I. 서론

본 논문은 태국어 어휘 '꺼' /kɔ:/의 여러가지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어휘 '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접속사이다. 또한 우빠깃썬라빠싼(Upakitsillapasan :1971:87), 라뜨리(Ratri:1986:121), 반썸(Bancop:1972:23) 같은 태국학자들도 '꺼'를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다. 접속사에 대해서 서정수(1996:77)는 낱말, 구나 절 또는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는 요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국어에서는 접속사란 용어를 피하고 접속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국어에서는 접속소라는 것이 어휘 범주 뿐만이 아니라 문법 범주도 포함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나 태국어는 고립어로서 문법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속사라 칭할 수 있다.

어휘 '꺼' 역시 이러한 본래의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 요소들 예를 들어 어휘와 어휘, 구와 구, 절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한국의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kwyoon@hufs.ac.kr

<sup>1)</sup> 자세한 내용은 이석주 의 (2000:119) 참조.

과 절 등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할 때 그의 통사적인 특성, 의미적인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첫째, '꺼'는 문법적으로 여러가지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종류는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구를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절을 연결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때 '꺼'의 위치는 대부분 연결되는 두 요소의 사이에 위치한다.

두번째, '꺼'가 접속사로 사용되면서 연결하는 구성요소, 즉, 어휘나 구, 절 등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꺼'가 연결하고 있는 요소들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 이 때의 의미란 문맥(context)으로 부터 오는 의미를 말한다. 둘째, '꺼'가 연결하는 두 요소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때의 의미는 문맥에 의존하는 의미가 아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꺼'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꺼'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이 외에도 '꺼'는 다른 어휘와 함께 관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관용어란 표현 의미가 구성요소의 의미로 부터 도출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용어란 의미가 명시된 단일 항목으로 어휘목록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황희영:1978). 이러한 정의로 비추어 볼 때 '꺼'가 이루는 관용어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것 또한 '꺼'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 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이 글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꺼'가 어휘나 구를 연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꺼'가 절을 연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꺼'가 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태국어의 어휘 '꺼'의 명확한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꺼'가 어휘나 구를 연결하는 경우

'꺼'가 어휘나 구를 연결할 경우 '꺼'는 연결하는 두 요소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때의 '꺼'는 연결하는 두 요소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 '꺼'가 연결하는 두 요소의 문맥으로 부터 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

나. '꺼'가 연결하는 두 요소의 문맥에 의존하는 의미가 아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 1. 같은 품사의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같은 품사의 어휘를 서로 연결하는 경우 '꺼'가 연결할 수 있는 어휘의 종류는 모두 6가지로서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시간부사이다.<sup>2)</sup> 그리고 연결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같은 품사이고 어휘목록도 같은 경우와 같은 품사이지만 어휘목록이 다른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 (1) 같은 품사의 어휘이고 어휘목록(lexical item)도 같은 경우

연결하는 어휘가 같은 품사이고 같은 어휘목록일 경우, 단독으로 쓰인 어휘<sup>3)</sup>를 연결하는 경우와 다른 어휘의 수식을 받는 구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 1) 단독으로 쓰인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접속사 '꺼'는 연결하고자 하는 두 어휘 사이에 위치하며 이 때 연결되는 어휘는 단독으로 나타난

<sup>2)</sup> 위첸 파누퐁(Wichin Panuphong:1977)은 대명사도 문장 내에서 명사와 같은 약함을 한다고 하여 명사로 분류하였다.

<sup>3)</sup> 여기서의 의미는 다른 어휘와 결합하지 않고 그 어휘 홀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어휘의 종류는 명사, 동사, 대명사 그리고 시간부사의 4 종류이다. 접속사 '꺼'가 이러한 형태로 사용될 경우 의미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연결하고 있는 두 어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이 때의 의미는 구성요소들의 문맥에 의존하게 된다. 각각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1) 명사연결

① 언급하고 있는 또는 연결하고 있는 명사가 화자에게는 어떠한 중요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문맥상의 의미를 함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때의 '꺼'의 의미는 '~라 하더라도', '~이기는 하지만'의 의미를 갖는다.

예) เพื่อน ก็ เพื่อน  
 p<sup>h</sup>ian ko: p<sup>h</sup>ian  
 친구 친구  
 :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면 친구지

위의 예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문맥상 '나는 관심이 없다', 또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등의 의미를 함유하는 문장들이 올 수 있겠다.

② 문맥상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화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예) พัทยา ก็ พัทยา  
 p<sup>h</sup>att<sup>h</sup>ja ko: p<sup>h</sup>att<sup>h</sup>ja  
 파타야 파타야  
 : 파타야라도 좋다

위의 예문은 대화 상에서 동의하는 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상에서 파타야로 같이 놀러 가자고 권유받았을 경우 거기에 동의하는 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두 명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미적으로는 두 명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 '꺼'의 의미는 '~라도 좋다', 또는 '~도 좋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③ 문맥상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화자가 결정 또는 결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꺼'의 앞에 올 수 있는 어휘는 대부분 대명사이며 '꺼'의 뒤에 위치할 수 있는 어휘는 명사이다.

예) 

นี่	ก็	แม่ /	นั่น	ก็	เมีย
ni:	ko:	mæ:	nan	ko:	mia
이것 <sup>1)</sup>		어머니	그 것		아내

: 이 사람은 어머니고 그 사람은 아내이고

위 예문에서 '꺼'는 각각 앞에 있는 대명사 '이것'과 '그 것'을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어머니'와 '아내'와 연결시켜 주고 있다.

## 1.2) 동사연결

① 화자의 승인이나 동의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예) 

กิน	ก็	กิน
kin	ko:	kin
먹다		먹다

: 먹자, 먹어야지, 먹겠다.

위의 예문은 예를 들어 화자가 남으로 부터 어떤 것을 먹으라고 재차 권유받았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꺼'는 두 동사 '먹다'를 연결해 주고 있다.

②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기

<sup>1)</sup> 이 태국어 어휘는 본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으나 현재는 사람을 지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위한 문맥에서 '꺼'가 두 동사를 연결하고 있다.

예) ไกล      ก็      ไกล  
 klaj      ko:      klaj  
 멀다                  멀다(주)  
 : 멀기도 하고, 멀기도 한데, 무척 먼데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가 먼데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다니는 차도 없다 또는 날씨도 멀다' 등등이 되겠다.

③ 화자의 어떤 사실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연결하고 있는 동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สวย      ก็      สวย  
 suaj      ko:      suaj  
 아름답다                  아름답다  
 : 예쁘기도 하고, 얼굴도 예쁘고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미모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공부도 잘 한다 또는 돈도 많다' 등등이 되겠다. 여기서 '꺼'는 두 동사 '예쁘다'를 연결해 주고 있다.<sup>6)</sup>

### 1.3) 대명사 연결

화자에게 있어서 현재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연

<sup>6)</sup> 이것은 상태동사로서 태국어에서는 상태동사와 형용사의 모양이 동일하다.

결하고 있는 대명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ทาน	ก็	ทาน
tʰa:n	ko:	tʰa:n
그분		그분

: 그 분이라도, 그 분이던 그 분이시, 그 분이라 하더라도

위의 예문은 예를 들어 화자가 '그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나는 무섭지 않다 또는 나는 따를 수 없다' 등등이 되겠다.

#### 1.4) 시간부사 연결

화자의 승인이나 동의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두 시간 부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เช้า	ก็	เช้า
cʰaw	ko:	cʰaw
아침		아침

: 아침에, 좋다 아침에

위의 예문은 예를 들어 화자가 시간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간을 결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늦게 일어 나지 말아라 또는 표는 내가 예매하겠다' 등등이 되겠다.

#### (2) 다른 종류의 어휘가 함께 사용된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여기서 다른 종류의 어휘와 함께 사용된 어휘란 그 어휘가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피수식어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의 구에서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접속사로 사용되는 '꺼'는 연결하고 있는 두 어휘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 때 두 어휘는 같은 품사이며 어휘목록도 같은 어휘이다. 그러나 다

른 종류의 어휘가 같이 사용된 어휘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다른 어휘를 수식하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1.1) 형용사 연결

다른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①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기 위한 문맥에서 '꺼'가 사용된다.

예) เสื้อ       กั๋น       กั๋น       กั๋น  
 sia      kaw      ko:      kaw  
 옷      낚다                      낚다  
 : 너무 낚은 옷은, 너무 옷이 낚으면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옷에 대해서 그 옷이 낚은데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입고 싶지 않다 또는 예쁘기 않다' 등등이 되겠다.

② 화자의 어떤 사실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두 형용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นิสัย      ดี      ดี      ดี  
 ni saj      di:      ko:      di  
 성격      좋다                      좋다  
 : 성격이 매우 좋아서, 너무 좋은 성격이다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좋은 성격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친구가 많다 또는 사귀고 싶다' 등등이 되겠다.



## 1.2) 부사연결

다른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 되는 경우이다.

①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기 위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예) กิน            ๑            ๑            ๑  
 kin      cu            kɔ:      cu  
 먹다      많이                      많이  
 : 너무 많이 먹어서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먹는데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똥똥해 졌다 또는 건강을 해쳤다' 등등이 되겠다.

② 화자의 어떤 사실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사용된다.

예) สอน            ๑            ๑            ๑  
 so:n      ke:n      kɔ:      ke:n  
 가르치다 잘                      잘  
 : 너무 잘 가르치다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데 대한 만족이나 칭찬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좋아한다 또는 게다가 마음도 좋다' 등등이 되겠다.

## 2) 다른 어휘가 수식해 주고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 경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꺼' 앞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와 '꺼' 뒤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

이다.

2.1) '꺼' 앞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

① 연결하고 있는 동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기 위한 문맥에서 '꺼'가 사용된다.

예) ไม่น่าตายก็ตาย  
 maj na: ta:j ko: ta:j  
 부정사 ...만 하다 죽다 죽다  
 :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죽었다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죽은데 대한 화자의 반대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sup>6)</sup>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아직 젊잖아, 또는 건강했었는데' 등등이 되겠다. 여기서 '꺼'는 두 동사 '죽다'를 연결해 주고 있다.

② 화자의 승인이나 동의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때의 동의나 승락은 완전한 동의나 승락이 아닌 마지못해 하는 승락이나 동의이다.

예) จะว่ายากก็ยาก  
 ca wa: ja:k ko: ja:k  
 미.조 말하다 어렵다 어렵다  
 :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치자.

위의 예문은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의견을 얘기했을 때 화자가 이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다' 등이다.

<sup>6)</sup> 여기서 반대되는 견해란 화자가 그 사건의 발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꺼' 뒤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

①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기 위한 문맥에서 '꺼'가 연결하고 있는, 후치하는 동사와 수식어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มา            ใ  
       ma:        ko:        ma:        sa:j  
       오다                    오다        늦다  
       : 오기도 늦게 오고, 늦기도 하고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숙제도 내지 않고 또는 일도 못하고' 등등이 되겠다.

② 화자의 어떤 사실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문맥에서 '꺼'가 연결하고 있는, 후치하는 동사와 수식어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เรียน        ใ            เรียน        ใ  
       rian        ko:        rian        ke:ŋ  
       공부하다        공부하다        잘  
       : 공부도 잘하다.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학업이 뛰어난데 대한 만족이나 칭찬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예를 들면 '착하기도 하다 또는 얼굴도 잘 생겼다' 등등이 되겠다.

## (2) 같은 품사의 어휘이지만 어휘목록이 다른 경우

'꺼'가 같은 품사의 어휘이지만 어휘목록이 다른 두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는 연결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 1) 단독으로 나타나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접속사 '꺼'는 연결하고자 하는 두 어휘 사이에 위치하며 이 때 연결되는 어휘는 단독으로 나타나며 두 어휘는 같은 품사지만 어휘목록이 다른 어휘들이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어휘의 종류는 명사, 동사의 두 종류이다. 접속사 '꺼'가 이러한 형태로 사용될 경우 의미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연결하고 있는 두 어휘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이때의 의미는 구성요소들의 문맥에 의존하는 의미가 아니다. 각각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1) 명사연결

① '꺼'가 서술(설명)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두 명사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예) แม่น้ำ ก็ เจ้าพระยา  
 mæ: na:m ko:      caw p'ra ja:  
 강                      짜오프라야  
 :강은 짜오프라야다.<sup>7)</sup>

위의 예문에서 '꺼'는 두 명사 즉, '강'과 '짜오프라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1.2) 동사연결

① 원인과 결과가 됨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이 경우 접속사 '꺼'가 연결하고 있는 두 동사는 전치하는 동사가 후치하는 동사의 원인이 되고 후치하는 동사는 그 결과가 된다. 또한 문미에 명령형 어조사가 나올 경우 후치하는 동사는 허락의 의미로 바뀐다.

<sup>7)</sup> 짜오프라야는 태국 방콕을 가로지르고 있는 유명한 강이다.

예1) ทิว      ก็      กิน  
 hiw      kɔ:      kin  
 배고프다      먹다  
 : 배가 고파서 먹었다.

예2) ทิว      ก็      กิน      ซะ  
 hiw      kɔ:      kin      sa  
 배고프다      먹다      어조사<sup>8)</sup>  
 : 배가 고프면 먹어라.

위의 예문 1), 2)는 모두 '꺼'가 동사 '배고프다'와 '먹다'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예1)은 화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며 예2)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허락한 내용이다.

②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기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예) (เวลา) เรียน      ก็      เล่น  
 (we:la:) rian      len  
 시간      공부하다      놀다  
 : 공부할 시간에 놀다

위의 예문은 현재의 대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2) 수식어가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접속사 '꺼'는 연결하는 두 어휘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 때 두 어휘는 같은 품사이지만 다른 어휘 목록에 속하며 또한 다른 수식어가 수식하고 있는 어휘이다.

<sup>8)</sup> ซะ/sa:/는 어조사로서 권유문이나 악한 명령문의 문미에 사용된다.

2.1) '꺼' 앞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

어떤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앞의 어휘와 뒤의 어휘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예) ไม่ กิน ก็ นอน  
 maj kin kɔ: nɔ:n  
 부정사 먹다 자다  
 : 먹지 않으면 잔다

위의 예문은 화자가 두 동사의 동작 중 어느 하나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2) '꺼' 뒤에 있는 어휘가 수식어가 있는 경우

① 앞의 동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뒤의 동사를 연결하며 뒤 어휘를 수식하는 수식사는 부정사로서 앞의 동작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앞의 어휘와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뒤의 어휘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예) หา ก็ ไม่ เจอ  
 ha: kɔ: maj cə:  
 찾다 부정사 만나다  
 :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

② 불만이나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해 두 동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 뒤의 동사가 수식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어휘이다.

예) พูด ก็ ไม่ ระวัง  
 pʰu:t kɔ: maj ra wəŋ  
 말하다 부정사 조심하다

: 말도 조심하지 않는다.

## 2. 다른 품사의 두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 (1) 단독으로 나타나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꺼'는 연결하는 두 어휘의 사이에 위치하며 두 어휘는 서로 다른 품사이다. 그러나 이 두 어휘는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루거나 수식, 피수식의 관계를 이룬다.

#### 1)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경우

접속사 '꺼'가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때 명사와 동사는 각각 주어와 동사가 되고 그 의미는 특정 상황에 대한 화자의 칭찬을 나타낸다.

예) อาหาร ก็       อร่อย  
       ?a: ha:n kɔ:       ?a rə:j  
       음식               맛있다  
       : 음식도 맛있다.

#### 2) 대명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경우

접속사 '꺼'가 대명사와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บาง ก็       คุย       บ้าง       ก็       เล่น  
       ba:ŋ   kɔ:       k'uj   ba:ŋ   kɔ:       le:n  
       일부               대화하다   일부               놀이  
       : 일부는 대화하고 일부는 놀고

#### 3) 동사와 부사를 연결하는 경우

화자의 어떤 사실에 대한 만족이나 칭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สอน ก็ เก่ง  
 so:n ko: ke:ŋ  
 가르치다 잘  
 :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다.

(2) 다른 어휘의 수식을 받고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끼'는 연결하는 두 어휘의 사이에 위치하며 두 어휘는 서로 다른 품사이다. 그리고 한 어휘는 다른 어휘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 때의 수식어는 부정사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불만이나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와 부정적 상황의 설명을 나타내는 두 가지이다. 그 예를 보자.

예) อาหาร ก็ ไม่อร่อย  
 ?a: ha:n ko: maj ?a rə:j  
 음식 부정사 맛있따  
 : 음식도 맛이 없다.

이와 같이 '끼'가 어휘 또는 구를 연결할 경우 어떤 어휘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또 각각의 겨 경우 '끼'의 문장 내의 위치나 통사상의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위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III. 문장을 연결하는 '끼'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끼'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려진 문장을 이관규(1990:97)은 복합문이라 하였으며, 최현배(1937:808)은 겹월



이라 하였다. 이러한 경우로 사용되는 '꺼'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어휘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꺼'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 의미 상으로는 연결하는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꺼'가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리고 복문에서의 주절 등 모두 4종류이다.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꺼'가 명사절에 사용된 경우

명사절에 사용되는 '꺼'는 '꺼'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명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그 위치는 명사절에 주어가 나타나 있던 지 또는 생략되어 있던 지에 관계 없이 그 문두에 나타난다. 이 때의 명사절의 의미는 상황(형태)의 설명이다.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 '꺼'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명사절의 사건의 상황을 말해주는 접속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그의 위치는 항상 명사절의 문두에 온다. 그 예는 ก็อย่างนี้ /kɔ: ja:ŋ tʰi:/ '...한 것', ก็นี้ /kɔ: tʰi:/ '...한 것', ก็การนี้ /kɔ: kan tʰi:/ '...하는 것', ก็ตามที่ว่า /kɔ: tam tʰi:/ '...한 것'이다. 예문을 살펴 보자.

예1) ก็อย่างนี้           เธอ      ทำ      อยู่  
           kɔ: ja:ŋ tʰi:       tʰə:      tʰam      ʔu:  
                                   너       하다      있다  
           : 너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예2) ก็ตามที่ว่า           จะ      มี                   การปฏิวัติ  
           kɔ: ta:m tʰi: wa:   ca      mi:               ka:n patiwat  
   미.소   있다               혁명  
           :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 2. '꺼'가 형용사절에 사용된 경우

형용사절에 사용되는 '꺼'는 '꺼'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그 위치는 형용사절에 주어 가 나타나 있던 지 또는 생략되어 있던 지에 관계없이 그 문두에 나타난다. 이 때 형용사절의 의미는 상황(형태)의 설명이며 그 상황이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 '꺼'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절의 사건의 상황을 말해주는 접속사와 함께 사용된다. 그 예는 **ก็อย่างก็** /ko: ja:ŋ tʰi:/ '...한 것 같은', **ก็ก็** /ko: tʰi:/ '...한 것', **ก็ที่ว่า** /ko: tʰi: wa/ '...한 것' 등이다. 예문을 보자.

예 1) ทรง หมม / ก็อย่างก็ ช่าง กำลัง ขอบ  
 song pʰom ko: ja:ŋ tʰi: cʰa:ŋ kam laŋ so:j  
 모양 머리 미용사 진행.조 만지다  
 : 미용사가 만지고 있는 머리모양은

예 2) รถ ก็ที่ว่า จะ ขาย  
 rot ko: tʰi: wa ca kʰa:j  
 자동차 미.소 팔다  
 : 팔려고 한다는 차는

### 3. '꺼'가 부사절에 사용된 경우

부사절에 사용되는 '꺼'는 '꺼'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며 복문에서 부사절과 주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접속사 '꺼'의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꺼'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 문장내에 위치하는 경우, 다른 접속사와 함께 쓰이고 부사절의 주어 다음에 오는 경우 그리고 주절 내에 위치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부사절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1) '꺼'가 문두에 오는 경우

'꺼'가 부사절의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로서 부사절의 주어 가

나타나 있던 지 생략되었던 지에 관계없이 항상 문두에 나타난다. 의미적으로는 모두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소, 시간, 상황, 비교, 원인, 조건, 목적, 예시 등이다. 각각의 예문을 한 가지 씩만 살펴 보겠다.

- 예 1) ก็ตรงที่ เขา วาง กระเป๋า ไว้  
 ko: troŋ tʰi: kʰaw wa:ŋ kra paw waj  
 ... 한 곳에서 그 놓다 가방 두다  
 : 그가 가방을 놓아둔 곳에서(장소)
- 예 2) ก็หลังจากที่ เขา เรียน จบ แล้ว  
 ko: la:ŋ cak tʰi: kʰaw rian cop læw  
 ... 한 후에 그 공부 마쳤다 완료조동사  
 : 그가 학업을 끝마친 후에(시간)
- 예 3) ก็ตาม ได้ ยืน มา ทุก อย่าง  
 ko: ta:m daj jin ma: tʰuk ja:ŋ  
 ... 한 데로 과.조 들다 오다 모두 것  
 : 모두 다 들어왔던 데로(상황)
- 예 4) ก็เท่าที่ ฉัน บอก เท่านั้นเอง  
 ko: tʰaw tʰi: cʰan bok tʰaw nan ʔe:ŋ  
 ... 한 만큼 나 말하다 ...만 단지  
 : 단지 내가 말했던 만큼 만(비교)
- 예 5) ก็เพราะว่า ฉัน ยัง ไม่ เข้าใจ  
 ko: pʰro wa: cʰan jaŋ maj kʰaw caj  
 왜냐하면 나 아직 부정사 이해하다  
 :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이유)
- 예 6) ก็เมื่อ คุณ ไม่ ไป  
 ko: mia kʰun ma: paj  
 ... 하면 당신 부정사 가다  
 :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조건)
- 예 7) ก็เพื่อที่ จะ ซื้อ บ้าน สัก หลัง หนึ่ง  
 ko: pia tʰi: ca si: ba:n sak sak haŋ nin  
 ... 하기 위하여 목적어 사다 한 채 한 채  
 : 사기 위하여(목적)

히려고 미.조 사다 집 ...반 채 하나  
: 집을 한 채 만 사려고(목적)

예8) ก็เป็นต้นว่า ทำ ขนม หรือ เย็บ เสื้อผ้า ko:  
pen ton wa: t'am k'a nom ri: jep sia p'a:  
...등과 같은 만들다 과자 또는 바느질하다 옷  
: 과자를 만들거나 바느질과 같은 (예시)

(2)문장 내에 '꺼'가 위치하는 경우

이것은 '꺼'가 부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말한다. 이 경우 '꺼'는 주절의 주어 뒤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절의 주어가 생략된 구문일 경우에는 위치 상 주절의 문두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꺼'의 의미 상의 역할은 주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부사절의 의미를 주절의 의미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꺼'가 연결하는 부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상황에 관계되는 의미

이 경우에 '꺼'는 주절의 동작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부사절과 함께 사용되며 그 위치는 주절 내에 위치한다. 이렇게 주절의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부사절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경우

부사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경우 사용되며 이 때 '꺼'는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 함께 사용된다. 즉, พอ...ก็ /pʰɔ:/.../kɔ:/...'...하자마자' 또는 หลังจาก...ก็ /lag cak/.../kɔ:/...'...한 후에' 등의 형태로 쓰인다.<sup>9)</sup> 이에 대한 예문을 보자.

예1) พอ เขา เห็น ฉัน / เขา ก็ เห็น

<sup>9)</sup> 이러한 접속문을 유현경(1986)은 순차접속이라 하였다.

pʰɔ: kʰaw hen cʰan kʰaw kɔ: ni:  
 하자마자그 보다 나 그 도망  
 :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

예2) หลังจากทาน ข้าว / เขา ก็ ไป ทา  
 lan ca:k tʰa:n kʰaw kʰaw kɔ: paj ha:  
 후에 먹다 밥 그 가다 찾다  
 เพื่อน  
 pʰian  
 친구  
 : 식사를 마친 후에 그는 친구를 찾아 갔다.

### 1.2) 주절과 부사절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부사절의 사건과 주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사용되며 이 때 나타나는 '꺼'는 부사절을 이끌며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다른 접속사 함께 사용된다. 즉, ตอน...ก็ /tɔ:n/.../kɔ:/'...할 때', คราว...ก็ /kʰraw/.../kɔ:/'...할 때', ระหว่าง...ก็ /ra wang/.../kɔ:/'...하는 중에', ในเวลา...ก็ /naj we la/.../kɔ:/'...할 때' 등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쓰인다. 이에 대한 예문을 보자.

예1) คราว ฉัน ป่วยหนัก / เขา ก็ มา  
 kʰraw cʰan puaj nak kʰaw kɔ: ma:  
 나 아프다 많이 그 오다  
 เยี่ยม  
 jiam  
 방문  
 : 내가 많이 아플 때 그가 나를 찾아 왔다.

예2) ตอน เป็น เด็ก / เขา ก็ เคย ได้รับ  
 tɔ:n pen dek kʰaw kɔ: kʰəj dajrap  
 이다 어린이 그 적이 있다 받다

**รางวัล เรียน ดี**

raj wan rian di:

상 공부 살

: 어렸을 때 그는 학업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다.

1.3) 주절의 사건이 부사절 보다 먼저 일어난 경우

주절의 사건이 부사절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경우 사용되며 이 때 나타나는 '꺼'는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 함께 사용된다. 즉, **ก่อน...ก็** /kɔ:n/.../kɔ:/ '...하기 전에' 또는 **ก่อนหน้า...ก็** /kɔ:n na/.../kɔ:/ '...하기 전에' , **กว่า...ก็** /kwa:/.../kɔ:/ '...보다 먼저' 등의 형태로 쓰인다. 이에 대한 예문을 보자.

예 1) **ก่อน จะ เข้า นอน / ลูก ก็ ควร**  
 kɔ:n ca kʰaw nɔ:n lu:k kɔ: kʰuan

미래조동사 들다 자다 너(아이) 해야 하다

**จะ สวด มนต์ ก่อน**

ca suat mon kɔ:n

미.조 외다 경전 먼저

: 잠자리에 들기전에 너는 먼저 경전을 암송해야 한다.

예 2) **กว่า เรา จะ ไป ถึง / หนังสือ ก็**  
 kwa: kʰaw ca paj tʰiŋ naŋ kɔ:

우리 미래조동사 가다 도착하다 영화

**คง ฉาย แล้ว**

kʰɔŋ cʰaj læw

틀림없이 상영하다 완료조동사

: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틀림없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것이다.

2) 반의적인 의미

이 경우에 '꺼'는 주절이 나타내는 의미와 반의적인 의미를

갖는 부사절과 함께 사용되며 그 위치는 주절 내에 위치한다.<sup>10)</sup> 이렇게 반의적인 의미를 갖는 접속사 '꺼'의 종류는 พอ...ก็ /pʰɔ:/.../kɔ:/ '...하더라도', กว่า...ก็ /kwa:/.../kɔ:/ '...이기는 하지만', ถึงแม้...ก็ /tʰiŋ/.../kɔ:/ '...이기는 하지만' 등이다. 각각의 예문을 보자.

예 1) พอ	ฉัน	จะ	ซื้อ	อะไร / เขา	ก็
pʰɔ:	ʔ'an	ca	si:	?a raj	kʰaw kɔ:
	나	미.조	사다	무엇 그	
ห้าม	ทุก	ครั้ง			
ham	tʰuk	kʰraŋ			
금지하다	때	번			
: 내가 무엇을 사더라도 그는 때 번 못하게 한다.					

예 2) กว่า	ตัว	จะ	สุก /	งา	ก็	ไหม้
kwa	tʰua	ca	suk	ŋa	kɔ:	maj
	콩	미.조	익다	콩		타다
เสีย	หมด	แล้ว				
sia	mot	læw				
버리다	전부	완료	조동사			
: 콩은 익었지만 껍은 다 타버렸다.						

### 3)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

이 경우에 '꺼'는 주절에서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즉 그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을 말해주는 의미를 갖는 부사절과 함께 사용되며 그 위치는 주절 내에 위치한다. 이렇게 반의적인 의미를 갖는 접속사 '꺼'의 종류는 ถ้า...ก็ /tʰa:/.../kɔ:/ '만일 ...이라면', ถ้าหาก...ก็ /tʰa: hak/.../kɔ:/ '...이기는 하지만',

<sup>10)</sup>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양인석(1972)과 이기동(1977)은 의미상 대조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뱃 절의 서술이 흔히 예기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ถ้า...ก็ /tʰa: wa/.../kɔ:/ '...이기는 하지만' 등이다. 각각의 예문을 보자.

예1) ถ้า เธอ ทน กิน ยา สัก น้อย  
 tʰa: tʰɔ: tʰon kin ja: sak nɔ:j  
 너 참다 먹다 약 단지 조금  
 เธอ ก็ จะ ทาย ได้ เร็ว  
 tʰɔ: kɔ: ca ha:j da:j rew  
 너 미.조 낫다 가능 빨리  
 : 만일 너가 좀 참고 약을 먹는다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2) ถ้า ว่า ไม่ ว่าง / เธอ ก็ ไม่  
 ttʰa: wa maj wa:ŋ tʰɔ: kɔ: maj  
 부정사 한가하다 너 부정사  
 ต้อง มา  
 tɔ:ŋ ma  
 해야만 하다 오다  
 : 만일 한가하지 않으면 너는 오지 않아도 된다.

(3) '꺼'가 다른 접속사와 함께 나타나고 부사절의 주어 다음에 오는 경우

'꺼'가 부사절을 이끄는 다른 접속사와 같이 나타나고 그 위치가 부사절의 주어 다음에 온다. 그러나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되었을 경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기도 한다. 의미상으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의미가 부사절의 의미를 결정하고 '꺼'는 그 부사절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 준다. 이 때 부사절의 의미는 원인과 조건의 두 가지이다. 각각의 예를 보자.

1) 부사절이 이유의 의미를 가질 경우



접속사 '꺼'는 주절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같이 사용된다. 이러한 접속사는

เพราะ...ก็ /pʰrɔː/.../koː/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다.

예) ฉัน	ช่วย	คุณ	ไม่	ได้	/	เพราะ	ฉัน
cʰan	cʰuaj	kʰun	maj	daj		pʰrɔː	cʰan
나	돕다	당신	부정사	가능			나
ก็	จน	เหมือน	กับ	คุณ			
koː	con	mian	kap	kʰun			
	가난하다	똑같이	과	당신			

: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 2) 부사절이 조건의 의미를 가질 경우

접속사 '꺼'는 주절의 사건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같이 사용된다. 이러한 접속사는 ไม่อย่างนั้น...ก็ /mai jaːŋ nan/.../koː/ '그렇지 않으면', ไม่เช่นนั้น...ก็ /maj cʰen nan/.../koː/ '그렇지 않다면' 이다

예) พรุ่งนี้	เธอ	ต้อง	ไป	โรงเรียน / ไม่อย่างนั้น
pʰrʉŋ ni	tʰɔ	tɔːŋ	paj	roːŋ rian maj jaːŋ nan
내일	너	해야	간다	학교
เธอ	ก็	จะ	สอบ	ตก
tʰɔː	koː	ca	sɔːp	tok
너		미.조	시험	떨어지다

: 내일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 4. '꺼'가 주절에 나타나는 경우

접속사 '꺼'가 주절에 나타나는 경우 '꺼'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꺼'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주절의 문두에 나오는 경우, 주절의 사이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어 주절의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경우 등 세 종류이다.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꺼'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

'꺼'가 두 개의 대등절<sup>11)</sup>을 연결하면서 주절의 문두에 위치한다. 의미적으로는 반의적 의미로 사용되는 접속사 ก็แต่ /kɔ: tæ:/ '... 하지만' 그리고 선택적 의미를 갖는 หรือไม่ก็ /ri: maj kɔ:/ '... 이 아니면' 등이다

예1) ฉัน ไม่ โทหก / ก็แต่ เขา โทหก  
 cʰan maj kohok kɔ: tæ: kʰaw kohok  
 나 부정사 거짓말하다 그러나 그 거짓말하다  
 :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가 거짓말했다.

예2) เธอ ควร จะ หา งาน ทำ/ หรือไม่  
 tʰə: kʰuan ca ha: ŋa:n tʰam ri: maj  
 너 해야한다 미.조 찾다 일 하다  
 ก็ เรียน หนังสือ ต่อ  
 kɔ: rian naŋ si: tɔ:  
 공부하다 계속

: 너는 할 일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2) '꺼'가 주절의 사이에 나오는 경우

'꺼'가 주절의 사이에 나오는 경우는 그 단독으로 나타나거

<sup>11)</sup> 대등접속에 대해 이석주 등(2000:137)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들이 서로 대등한 통사적 지위를 가지고 접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 또는 다른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절이 주어 생략된 문장일 경우는 문두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의미상으로는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의미가 주절의 의미를 결정하고 '까'는 그 주절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 준다. 이 때 주절의 의미는 까닭<sup>12)</sup>과 계기 한정<sup>13)</sup>의 두 가지이고 까닭은 ก็เลย /ko: læ:j/ '...하지만', ก็จึง /ko: tʰiŋ/ '...하지만' 등 이고 계기 한정<sup>13)</sup>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는 ก็ /ko:/ 단독으로 사용된다. 각각의 예문을 보자.

예1) วันนี้ ไม่ ค่อยสบาย/ ฉัน ก็เลย ไม่  
 wan ni: maj kʰɔ:j sa ba:j cʰan ko: læ:j maj  
 오늘 부정사 별로 편하다 나 부정사  
 ไป ทำ งาน  
 tpaj ʰam ɲa:n  
 자다 하다 일  
 :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나는 일을 하려 가지 않았다.

예2) เขาโกรธฉัน / ก็จึง ไม่พูดกัน  
 kʰaw krot: cʰan ko: tʰiŋ maj pʰu:t kan  
 그 화나다 나 부정사 말하다 서로  
 จน บัดนี้  
 con bat ni  
 까지 지금  
 : 그가 나에게 화가 나서 지금까지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예3) คุณ ไป / ฉัน ก็ ไป  
 kʰun paj cʰan ko: paj

<sup>12)</sup> 까닭이란 원인과 이유를 포괄하여 가리키는 말로 쓴 것이다.

<sup>13)</sup> 계기 한정이란 앞 절과 뒤 절을 차례로 이으면서 전자가 후자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꺼'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어휘와 함께 여러가지 관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관용어란 표현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도출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용어란 의미가 명시된 단일 항목으로 어휘목록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 비추어 볼 때 '꺼'가 이루는 관용어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다. '꺼'와 함께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들은 동사, 조동사, 부사 등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관용어는 문장내에서 술어 역할을 한다(나와완 : 1981). 그 예를 살펴보겠다.

## 1. ก็เป็น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동사 เป็น /pen/과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เป็น /pen/의 의미는 '가능하다' 또는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이 무슨 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화자가 후자를 더 강조하고 싶은 동작일 경우 사용된다.

예) 

ตัด	เสีย	ก็	เป็น
tat	sia	ko:	pen

재단하다웃

: (다른 일은 물론이고)재단도 할 수 있다.

## 2. ก็ช่าง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동사 ช่าง /c'a:ŋ/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해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ช่าง /c'a:ŋ/의 의미는 '내버려 두다' 또는 '놔

두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제 3자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제 3자의 행동은 현재의 일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예) เขา            ไม่            มา            ก็            ข้าง  
          kaw        maj        ma:        ko:        c'a:ŋ  
          그            부정사    오다  
          : 그가 안오면 내버려 뒀다.

### 3. ก็ได้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조동사 ได้ /daj/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ได้ /daj/의 의미는 '...해도 된다' 또는 '도 가능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아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제안하는 의미를 가질 때 사용되며 이 때 제안하는 내용은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소개나 권유의 의미가 강하다.

예) พัก            ก่อน            ก็            ได้  
          pʰak        ko:n        ko:        daj  
          쉬다        먼저  
          : 먼저 쉬어도 괜찮다.

(2) 화자가 어떤 사실을 예측하고 있음을 나타내교자 할 때 사용하며 '꺼' 앞에 오는 조동사는 예측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조동사이다.

예) เขา อาจ จะ เป็น คน ดี ก็ ได้  
 kaw ?a:t ca pen k'on di: ko: :daj  
 그 ...일 거다 미.조 이다 사람 좋은  
 : 그는 아마 좋은 사람일 지도 모른다.

#### 4. ก็ว่าได้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동사 ำ/wa:/와 조동사 ด้ /daj/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ำ/wa:/의 의미는 '일컫다, 말하다'의 의미이고 ด้ /daj/의 의미는 '...해도 된다' 또는 '도 가능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라고 할 수 있다'이다. 또한 이 관용어는 화자가 말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사용된다.

예) เด็ก คน นี้ เก่ง ที่สุด ใน โรงเรียน  
 dek k'on ni: keŋ tʰi: sut nai ro:ŋrian  
 아이 사람 이 잘하다 가장 ...에 학교  
 ก็ ำ ด้  
 ko: wa: daj

#### 5. ก็ยังได้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조동사 ัง/ja:ŋ/과 조동사 ด้ /daj/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ง/ja:ŋ/의 의미는 '아직, 여전히'의 의미이고 ด้ /daj/의 의미는 '...해도 된다' 또는 '도 가능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도 가능하다'이다.

예) เจะ จะ ให้ ฉัน กิน อีก ก็  
 tʰə: ca haj cʰan kin ʔi:k ko:  
 너 미.조 하게 하다 나 먹다 더  
 ยัง ได้  
 ja:ŋ daj  
 : 너가 나에게 더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도 있다.

6. ก็ยังดี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조동사 ยัง/ja:ŋ/과 형용사 ดี /di:/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ยัง/ja:ŋ/의 의미는 '아직, 여전히'의 의미이고 ดี /di:/의 의미는 '좋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도 좋다'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실이 비록 원하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은 것 보다는 낫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ขาย ได้ ครึ่ง นึ่ง ก็ ยัง ดี  
 kʰa:j daj kʰriŋ niŋ ko: ja:ŋ fi:  
 팔다 가능 절반  
 : 절반이라도 팔았으면 됐다.

7. ก็แล้วแต่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조동사 แล้ว/læ:w/와 전치사แต่/tæ:/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แล้ว/læ:w/의 의미는 '완료'의 의미이고 แต่/tæ:/의 의미는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แล้ว/læ:w/와 แต่/tæ:/가 합쳐져고 '...에 달려있다'의 의미인 관용어구가 된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의 결정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결정의 책임도 청자에게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 เเธอ จะ ไป โทน ก็ แล้ว แต่  
 tʰɔ: ca pai naj kɔ: læw tæ:  
 너 미.조 가다 어디  
 : 너가 어딜 가던 너의 마음이다.

## 8. ก็แล้วกัน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조동사 แล้ว/læ:w/와 부사 กัน/kan/이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แล้ว/læ:w/의 의미는 '완료'의 의미이고 กัน/kan/의 의미는 '함께'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แล้ว/læ:w/와 กัน/kan/이 합쳐져서 '...게 하도록 하자' 의미인 관용어구가 된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거나 권유할 때 또는 어떠한 행동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คุณ กลับ ก่อน ก็ แล้ว กัน  
 kʰun klap kɔ:n kɔ: læw kan  
 당신 돌아가다 먼저  
 : 당신이 먼저 돌아가는 것으로 하자..

## 9. ก็ด้วยกัน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동사 ด้วย/læ:w/와 부사 กัน/kan/이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ด้วย/duaj/**의 의미는 '같다'의 의미이고 **กัน/kan/**의 의미는 '함께'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세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마찬가지다', '똑같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ก็ด้วยกัน**' 앞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예) คน เรา ก็ ด้วย กัน  
 k'on raw kw: duaj kan  
 사람 우리  
 : 우리 사람은 똑 같이

(2) '같이', '함께'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ก็ด้วยกัน**' 앞에 동사가 와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예)ลำบาก ก็ ด้วย กัน  
 lam ba:k kw: duaj kan  
 곤경에 처하다  
 : 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 10. ก็ดี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형용사 **ดี/di:/**와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ดี/di:/**는 '좋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이던 ...이던'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또 두 문장이 연결되어 사용되며 동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다.

예) คน รวย ก็ ดี / คน จน ก็ ดี

kʰon	ruaj	kɔ:	di:	kʰon	con	kɔ: di:
사람	부유하다			사람	가난하다	

: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 11. ก็ตาม

여기서 사용되는 '꺼'는 동사 ตาม/ta:m/과 합쳐져서 관용어화 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꺼'의 의미는 '...도' 또는 '...역시'의 의미를 가지며, ตาม/ta:m/은 '...데로, ...따라'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어휘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다.

(1) 화자가 어떠한 서로 지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동등한 지위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때 사용하며 이 때의 의미는 '...이던'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ก็ตาม' 앞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예)เด็ก	ก็	ตาม / ผู้ใหญ่	ก็	ตาม
dek	kɔ:	tam	pʰu ya:j kɔ:	ta:m
어린이			어른	

:어린이건 어른이건

(2) 또 하나의 문장과 반의적인 문장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이 때의 의미는 '...이더라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ก็ตาม' 앞에 동사가 와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예)ถึง	พ่อ	จะ	ยากจน	ก็	ตาม
tʰiŋ	pʰɔ:	ca	ya:k con	kɔ:	ta:m
비록	아버지	미.조	가난하다		

:비록 아버지가 가난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꺼'가 다른 어휘와 함께 관용어를 이루는 것을

그 예를 들어 살펴 보았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태국어의 어휘 '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태국어의 꺼는 통사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다. 태국어는 언어 분류 상 고립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문법범주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어휘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태국어 어휘 '꺼'는 이러한 접속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휘로서 그 역할도 매우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이 태국어 어휘 '꺼'를 통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그 각각의 통사적 특성을 가질 때 어휘의 의미적 특성이 따르는 가도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꺼'는 접속사로 쓰이면서 어휘와 어휘, 어휘와 구,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준다. '꺼'가 어휘와 어휘를 연결해 주는 경우 그 어휘들이 같은 품사인 경우와 다른 품사인 경우가 있다. 같은 품사인 경우 그 어휘들이 같은 어휘목록에 속해 있는 어휘인가 아닌가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경우가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꺼'가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꺼'가 연결시킬 수 있는 절의 종류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각의 의미적 특성도 알아보았다. 또한 '꺼'가 주절에 나타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꺼'가 다른 어휘와 함께 관용어를 만드는 경우 그와 결합 하는 어휘들은 동사, 조동사, 부사, 형용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관용어로서 문장 내에서의 역할은 술어가 됨을 알아보았다.

위와 같이 태국어 어휘 '꺼'를 분석해 봄으로써 비모국어화자가 태국어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더 나아가 태국어의 다양한 접속문들을 연구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태국어, 접속문, 접속사, 꺼

### 참고문헌

- 서정주. 1996. 『현대 국어분법론』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원.
- 양인석. 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 유현경. 1986. "국어접속구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 이관규. 1989. "동사 연결의 유형과 특성" 『우리어문연구』, 3.
- 이기동. 1977. "대조, 양보의 접속어미의 의미연구(1)" 『어학연구』 13-2
- 이석주. 이주행. 2000.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경성 : 연희전문출판부.
- 황병순. 1988. "국어 복문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14.
- 황희영. 1978.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9』, 성곡학술 문화재단.
- Bancop Phanthumetha. 1972. *Laksana Phasathai* (태국어의 특징) Bangkok: Rungruangsang.
- Nawawan Phanthumetha. 1981. *Wayakon Thai* (태국어 문법) Bangkok: Rungruangsang.

Ratri Thanwarachon. 1986. *Laksana Phasathai* (태국어의  
특징) Bangkok: Chulalongkon Univ.

Upakitsillapasan Phraya. 1971. *Kakphasathai* (기초태국어)  
Bangkok: Thaiwatanaphanit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Word 'kə:' in Thai

Yoon, Kyung-W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uses of word "kə:" in regards to its positions, grammatical function and meaning.

First, the word "kə:" is a single word with various functions. It can function as word linker, word-group linker, clause linker, and a sentence linker. The position of the word "kə:" is between the elements that it links. These units are usually of the same type (i.e word and word; group of word and group of word; clause and clause; and sentence and sentence.) These elements are usually similar. The linked words generally belong also the same word class. The linked groups of words consist of the same set of components. The linked clauses are of the same type. It is very rare for "kə:" to link elements which are not similar.

Second, "kə:" serves a semantic function of placing emphasis on the elements being linked. When it links word or groups of words the emphasis is placed in two different manners. First it will emphasize the meaning of word or group of word which are the meaning from the context of situation. Second it will reveal the meaning of word or group of word in various manners. When "kə:" links a clause or a sentence, the emphasis will be placed only

on the clause or sentence in which “kɔː” is contained.

Third, the word “kɔː” is used as idioms.

The study consists of 5 chapter. Chapter 1 is an intruduction. Chapter 2 deals with “kɔː” as a linker of words or group of words. Chapter 3 deals with “kɔː” as a linker of clauses. Chapter 4 deals with “kɔː” as a idiom. Chapter 5 is a conclusion and suggestion.

**Key Words :** Thai Language, Compound sentence, Conjunctor, kɔː